

부모 및 조모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 동거와 비동거 가족의 비교 —

The relationships of the adolescent with parents and
grandparents and their effects on the adolescent's ego identity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과교육 백문화
한국교원대학교
조교수 조병은

Home Economics Education Major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Mun Wha Back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Assistant Professor
Byung Eun Cho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s of the study are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bond between grandmother and grandchild and the degree of cohesion between child in adolescence and their parents on adolescent's ego identity.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 level of adolescent's ego identity is moderate on the whole. Not only the degree of the cohesion between children in adolescence and parent is high, but also the bond between children in adolescence and grandmother is high.

Second, adolescent's ego identity is associated with cohesion with their parent. The research also shows that adolescent's ego identity is influenced by the relationship between grandchild and grandmother. Finally, the important factors on ego identity of the adolescent who are living with their grandmothers are the degree of the cohesion with father, grandmother-parent relationships, the degree of the cohesion with mother, and occupational status of mother. Those who are not living with grandmothers, the degree of the cohesion with their mothers and the bonds with grandmothers have significant influences on adolescent's ego identity.

I.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가족관계에 있어서 가족생활주기의 변화, 및 평균수명 기대의 연장으로 조부모와 손자녀간의 유대관계가 점차로 길어지고 있다. 뿐만아니라 급속히 발전하는 산업화에 따른 가족 형태의 핵가족화, 가족개념의 변화, 독립과 개별화 가치관의 우세, 고부간 갈등의 노골적인 표출등의 요인으로 조부모와 손자녀간의 관계에 변화를 요구한다.

비록 사회가 변화에 따라 가족의 형태 및 가치관이 달라지고는 있으나, 혈연관계가 비교적 강한 가족 의식이 깊이 남아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확대가족뿐만아니라 핵가족을 형성하더라도 가족관계에 있어서 심리적, 경제적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가족상호간의 영향은 서구사회보다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김재은, 1974).

가족관계 연구에 있어서 확대가족 및 핵가족과 조부모와 손자녀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가족상호관계의 영향을 이해하여 가족관계의 이론에서도 중요하고, 인간발달적인 견지에서 조부모와 손자녀간의 의미있는 상호 작용을 통하여 심리적 발달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조부모와 손자녀간의 유대관계는 손자녀가 삶의 경험이 많은 조부모로부터 문화적인 지식과 가족역사를 전달받음으로써 시간과 경험과 삶의 연결, 즉 현재와 과거, 미래를 보게 해줄 수 있으며, 이러한 세대 상호관계의 인식을 통하여 청소년은 연속감과 통합감을 발달시켜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을 형

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Barranti, 1985).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은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등의 자기 실존적인 물음에 대한 내적인 대답으로 개인적인 발달 측면에서 뿐만아니라 사회적으로 볼때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따라서 청소년기에는 자아정체감을 건전하게 발달시켜 자기의 인식과 의미를 일관성있게 유지해가는 일이 전인적인 인격형성에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자아정체감 형성과정에서 잠재적인 가족자원으로서의 조부모가 제공하는 지식과 경험, 애정은 청소년기 손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가족환경으로서의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와의 관계등을 다루고 있으며, 그러한 연구결과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청소년기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김희영, 1986. 홍성애, 1989). 그러나 부모와의 관계와 더불어 다른 가족원과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살펴본 연구가 많지 않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확대가족이 비교적 많고, 비록 핵가족 추세에 있다고는 하나 세대간의 유대관계가 강한 가족체계속에서 조부모와 손자녀간의 관계가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부모와 손자녀간의 관계를 독립적인 주제로 다룬 연구가 비교적 적다. 특히 조부모와의 관계가 손자녀의 인성발달이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변화하는 가족관계속에서 중요한 부모 자녀 관계뿐만아니라 손자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는 조모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 청소년기 손자녀가 지각한 부모 및 조모와의 유대관계가 확대가족과 핵가족에 있어서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확대가족과 핵가족에 따른 가족관계의 역동성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B.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부모와의 응집도, 조모와의 친밀도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연구대상자의 성, 연령, 부모의 교육수준, 직업, 모의 취업여부, 조모의 교육수준, 연령, 건강, 조모와의 동거여부, 지리적 거리, 접촉빈도)에 따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부모와의 응집도, 조모와의 친밀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부모와의 응집도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조모의 역할과 조모와의 친밀도는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5〉 조모 - 부모 관계와 조모와의 친밀도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6〉 조모와의 동거와 비동거에 따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가족관계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A.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부모 자녀간 응집도

Erikson (1968)은 Freud의 정신분석학적 이론을 근거로 하여 청소년들이 갖게 되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자기 탐색적 물음에 대한 대답을 '자아정체감(Ego Identity)' 개념으로 도입하여 심리사회학적 이론을 발달시켰다.

자아정체감은 자신의 연속성, 단일성, 독자성, 불변성, 통합성에 대한 지각이며, 개체의 동일성에 대한 의식적 감각이다. 자신에 대한 개념형성이 실패하였을 경우, '정체혼미' 또는 '역할혼돈'을 초래하게 되

는데, 이것은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연속성, 통합성을 성취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Kilpatrick (1974)은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의 삶에 있어서 연속성이 결핍되어 있으며, 이것은 개인적인 발달적 변화와 함께 급격한 사회적, 정치적, 기술적 변화로 인하여 과거와 현재, 미래간의 연결이 희미해짐으로써 '역사적인 혼란'을 겪게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은 인간발달적인 견지에서 매우 중요한 발달과업이며, 이것의 형성과 발달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바람직한 가족관계가 필요하다.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관한 연구에서 보면 부모 자녀 관계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 입증되고 있다.

부모 자녀 관계는 가정의 심리적 환경변인으로써, 부모 자녀간의 신뢰와 상호존중 그리고 응집성과 밀접한 상관이 있다. 가족의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된 응집성의 개념은 자기 자신보다도 가족의 이익과 화목, 결속을 중히 여기는 우리나라의 가족을 연구하고 이해하는데 특히 유용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김희영(1986)의 연구에서 청소년기 남녀의 자아정체감을 가장 의의있게 예언해 주는 가정의 심리적 환경변인은 '가정의 응결력'으로 나타났으며, 홍성애(1988)의 연구에서도 가족의 응집성이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안정되고 화목한 가정분위기하에서의 부모 자녀 관계는 자녀에게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바로 인식하여 주어진 사회여건에 잘 적응하게함을 나타낸다. 또한 자신의 역할을 찾아내고 자신을 통합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갖게하여 긍정적인 자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요인임을 의미한다.

B. 조모와 손자녀간의 친밀도

가족학 연구분야에서 조부모와 손자녀의 세대상호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비교적 적다. 특히 청소년기 손자녀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 이유로 Baranowski(1982)는 세대간 역할이 조부모와 손자녀 각각의 삶에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Kornhaber &

Woodward(1981)는 핵가족화와 먼 거주지로의 이동으로 인하여 조부모는 손자녀에게 진정한 애착이 없는 유명무실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독특한 자아정체감을 위한 탐색기인 청소년들은 아동기때보다 가족들과 적은 시간을 보내는 반면, 또래와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또래지향적 경향이 청소년의 삶에 있어서 조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게 만들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조부모와 손자녀간의 유대관계를 저해하는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부모와 청소년기 손자녀간의 친밀한 관계형성이 가능한 중요한 이유는 평균수명의 증가 및 가족생활주기 변화로 많은 청소년들이 조부모와 비교적 오랜기간을 함께 할 가능성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조부모들은 평균적으로 과거보다 더 건강하고 손자녀들과 함께 하는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증가되어 가고 있다.

Kornhaber & Woodward(1981)는 조부모와 손자녀간의 애착이 핵가족에서 느낄 수 있는 정서적이고 독감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으며, Hagestad(1983)는 조부모와 손자녀 세대간의 상호관계가 관대하고 따뜻하며 친밀감이 증가되는 관계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록 구조적으로는 핵가족화가 증가하고 있더라도 전통적인 부계사회와 가족주의의 팽배로 정서적, 기능적으로 확대가족과 상호의존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조부모와 손자녀 관계는 가족관계에서 중요하다고 기대할 수 있다.

가족관계연구에 있어서 조부모와 손자녀간의 관계를 본 실증적 연구는 비교적 많지 않다. 김재은(1974)은 20-70세 성인을 대상으로 가족구성원간의 심리적거리를 측정한 연구에서 손자녀들은 할아버지보다 할머니를 더 가깝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진과 조석미(1980)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박의순(1990)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청년기 손자녀가 가장 좋아하는 조부모는 조모라고 보고하였으며 특히 외조모를 가장 좋아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들로 우리나라 가족관계에서 조모는 조부보다 더욱 가까운 존재로 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가족관계에 있어서 세대간 연결의 중추적 역할은 심리적으로 가깝게 여겨지는 조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친족유대가 비교적 긴밀하고 가족구성원간에 응집력 및 유대가 강한 우리나라의 조부모와 손자녀는 서구보다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손자녀의 인성발달에 미치는 조부모의 영향력을 본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부모와 손자녀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시도로서 조모에 초점을 두어, 조모와 손자녀간의 심리적 정서적 관계의 한 측면인 손자녀가 조모에 대해 지각한 친밀도와 손자녀의 인성발달 측면인 자아정체감과 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C. 자아정체감과 부모 및 조모와의 관계

자아정체감은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이러한 자아정체감 형성과 발달에 부모 및 조부모와의 관계가 영향을 미치며, 변화하는 가족관계에 있어서 청소년기의 독특한 부모 자녀관계에 조부모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

Baranowski(1982)는 조부모가 청소년기 손자녀에게 부모에 대한 정보를 줌으로써 그들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Streltzer(1979)는 청소년들이 조부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부모의 태도와 행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은 그들 부모와 갈등이 생겼을 경우, 조부모를 속마음을 털어 놓을 수 있는 친구나 중재인(조정자)으로서 의지하며, 조부모와 손자녀간의 친구같은 대등함은 부모 자녀간의 긴장의 구제자(위안자)로서 존재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조부모의 역할이 손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Mead(1974)는 조부모가 그들이 살아온 삶과 역사적으로 많은 변화에 적응해온 것을 통해서 청소년기 손자녀에게 삶의 연속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조부모는 '변화에 재배치된 삶'을 통하여 과거에 대한 직접적인 확신감을 손자녀에게 제

공함으로써 어느 누구보다 청소년들을 가장 잘 도와줄 수 있고, 문화적, 가계승적 차원에서의 지식전수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서동인(1991)은 조모와 손자녀간의 친밀한 유대관계가 손자녀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한 두 자녀로 적은 수의 자녀를 두는 현대가족은 부모가 자녀에게 강한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동시에 지나치게 기대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녀들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때 조부모의 존재는 이러한 강도를 부드럽게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조부모와 손자녀간의 밀접한 유대관계는 가족원들의 응집성을 강화시키고 가족역사의 계승을 용이하게하며 가족에의 소속감을 굳게 해주어 가족원들의 정체감에 기여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손자녀와 조부모 관계는 직접적인 세대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세대인 부모와 조부모의 관계에 의존된다고 한다.

예를 들면, Robertson(1976)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질문지 조사에서, 그들의 2/3가 조부모와의 관계는 부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서동인(1991)과 박의순(1990)의 연구에서도 조모와 모의 관계에서 우호적인 정도가 조모와 손자녀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이와같은 연구 결과들은 부모가 친족체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하며, 조부모 손자녀 관계에 있어서 가족구성원간의 상호의존성이 고려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가족관계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부모, 조부모와 손자녀 관계가 좋을때 가족간 응집도 및 친밀도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이며, 결국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에서 볼때 부모 자녀 관계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는 많으나, 전체적인 가족구조에 있어서의 조부모 영향을 본 연구가 적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의 심리적 환경변인으로서의 부모 자녀 관계와 더불어 조모와 동거하는 경우와 동

거하지 않는 경우에 조모와 손자녀관계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보고자 하였다.

Ⅲ. 연구 방법

A.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조모가 생존해 계신 고등학교 1, 2학년 남, 여 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자아정체감의 형성과 발달이 사춘기 초기인 중학교 시기에서부터 시작하여 말기인 대학교까지 이루어지므로, 그 중간 단계인 고등학교 시기의 자아정체감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사회경제적 지위별로 연구대상을 고르게 표집하기 위하여 상, 중, 하류에 속하는 서울 시내에 소재한 12개의 남, 여 고등학교를 임의로 선정함으로써 표본이 편포되지 않도록 지역성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시내에 소재한 남, 여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으로, 조모와 동거 및 비동거하는 여학생 155명, 남학생 158명으로 총 313명이었다.

B. 측정 도구

1. 부모 자녀간 응집도

자녀가 지각한 부모와의 결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응집성 문항내용은 김순옥(1988)의 '부모자녀간 응집성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에서 제시한 부-자녀의 응집도를 측정하는 10개 문항과 모-자녀의 응집도를 측정하는 10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부모 자녀 관계 측정도구는 총 20 문항으로, 모든 문항은 각각 5점 리커트형의 척도로 평점되었다. 내적일치도를 보는 Cronbach α 계수는 부-자녀의 응집도가 .81, 모-자녀의 응집도가 .80 이었다.

2. 조모와의 친밀도

손자녀가 지각한 조모와의 결속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친밀도 문항내용은 박의순(1990)의 '대학생이 지각한 조부모와의 관계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지 문항을 근거로 하여 15문항을 작성하였으며, 각 문항은 리커트형 5점 척도로 평점되었다. 그리고 Neugarten과 Weinstein(1964)의 조부모 역할 유형을 측정하는 문항 1개를 포함시켰다. 조모와의 친밀도를 본 15문항의 Cronbach α 값은 .93으로 나타났다.

3. 조모 - 부모 관계

조부모와 손자녀간의 관계는 그 중간 세대인 부모의 태도가 영향을 미친다(박의순, 1990; Baranowski, 1982; Kornhaber & Woodward, 1985; Sprey & Matthews, 1982)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조모와 부모간의 관계를 측정하는 문항 2개를 리커트형 5점척도로 평점하였다.

4.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서봉연(1975)이 제작한 자아정체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 척도는 총64개 문항으로 8개의 하위척도로 나뉘어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8개의 각 하위 영역별로 전체척도와와의 상관계수가 높은 문항을 4개씩 각각 선정하여 총 3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의 반응은 리커트형 5점척도로 평점하였으며, 그 합계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하였다.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척도에서 산출된 신뢰도는 .67이다.

5. 접촉량

본 연구에서는 접촉량을 대면적 접촉의 빈도와 대면적 접촉에 영향을 미치는 지리적 거리를 점수화하여 그 총점으로 사용하였다. 조모와 비동거일 경우, 대면적 접촉빈도를 '매일'은 6점, '일주일에 한두번' 5점, '한달에 한두번' 4점, '일년에 한두번' 3점, '1-2년에 한두번' 2점, '거의 빈적이 없다'에 1점으로 점수화하였으며, 지리적거리는 '걸어서 가는 거리에 사신다'에 5점 '걸을수는 없으나 1-2시간이내 거리의 서울에 사신다' 4점, '서울에서 4시간이내 거리에 사신다' 3점, '서울에서 4시간이상 거리에 사신다' 2점, '외국에 사신다'에 1점으로 평점하였다.

6.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교육수준은 무학에서부터 대학원 졸업이상으로 나누어 1점에서 6점 순위로 구분하였으며, 부모의 직업은 홍두승(1983)의 직업분류를 기초로하여, 무직 1점에서부터 전문직 6점까지 6단계로 구분하였다. 부모의 소득을 묻는 문항은 제외되었는데, 그 이유는 청소년기 자녀들이 부모의 소득수준을 정확히 모를 것이라고 추정되었기 때문이다.

IV. 결과 및 해석

A.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남자 158명(50.5%), 여자 155명(49.5%)이고, 평균연령은 16.2세이다. 연구대상자들의 부의 학력은 고졸이상이 89.1%를 차지하고 있고, 모의 학력은 고졸이상이 73.7%로, 대체적으로 부의 교육수준이 모의 교육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들의 부의 직업은 무직, 행상, 단순노동자 4.8%, 피고용기술자, 자영상인 33.0%, 일반사무직, 기술직 27.2%, 관리직 28.2%, 전문직 6.8%이다. 모의 직업은 전업주부가 73.0%, 취업주부가 27.0%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조모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조모의 연령은 61-70세가 47.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71-80세가 40.6%로 나타났다. 조모의 학력은 국졸이하가 78.5%로서 비교적 교육수준이 낮는데 이것은 이 연령층에 해당하는 시대적인 경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모와의 주거상태는 동거 48.4%, 비동거 51.6%로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연구대상을 동거와 비동거로 나누어 거의 동일한 비율로 표집하였기 때문이다.

조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조모의 거주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조모가 39.3%, 서울에서 살고 있지 않은 조모가 60.7%로 나타나, 비교적 조모와 멀리 떨어져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모와 손자녀간의 접촉은 동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년에 한두번이 46.0%로 가장 많이 나타나, 조

모와 손자녀간의 대면적 접촉이 비교적 적음을 알 수 있다. 박의순(1990) 연구에서도 친가, 외가 조부모와의 접촉빈도를 살펴보면, 평균 1달에 한두번이 32.0%, 1년에 한두번이 46.8%로 나타나 역시 대면적 접촉이 적음을 알 수 있고, 서동인(1991) 연구에서도 친조모, 외조모와의 접촉에서 '지난주의 대면적 접촉이 없다'고 응답한 것이 각각 65.8%, 58.4%로 각각 나타나 매주마다 접촉하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손자녀와 조모간의 대면적 접촉이 대체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연구대상자들이 응답한 조모는 친조모가 67.4%, 외조모가 32.6%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동거하는 조모이거나 비동거일 경우 살아계신 조모중 한 분을 택하여 응답한 결과이다. 따라서 응답한 비율로 양계 조모 중 친조모와 더 친밀하다고 말할 수는 없고 친조모와의 동거율이 높은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조모의 건강은 나쁘다 14.4%, 보통이다 59.4%, 건강하다 26.2%로 나타나, 보통 이상이 85.6%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비교적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들과 조모와의 접촉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매우 싫어한다 0.6%, 상관하지 않는다 19.2%, 좋아하는 편이다 28.4%, 매우 좋아 한다 51.8%로써, 조모와 손자녀가 접촉하는 것을 좋아하거나 매우 좋아하는 것이 80.2%로 나타나 부모들이 조모-손자녀간의 접촉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이 나타났다.

연구대상자가 지각한 조모의 역할을 조모와 동거 및 비동거하는 집단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조모와 동거하는 청소년이 지각한 조모의 역할은 어려울때 내편이 되어 주신다 30.7%, 혼계와 충고를 해 주신다 28.7%, 집안일을 도와 주신다 26.7%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모와 비동거하는 청소년이 지각한 조모의 역할은 혼계와 충고를 해 주신다 36.0%, 어려울때 내편이 되어주신다 28.0%, 집안일을 도와주신다 14.9%, 용돈을 주신다 12.4%의 순으로 나타나, 조모와 비동거하는 집단에서는 조모와의 관계에서 거리감을 느끼는 정도가 비교적 높았다.

이를 표로 제시해보면 <표 1> <표 2>와 같다.

<표 1> 조모와 동거하는 청소년이 지각한 조모 역할

(N = 150)

조모 역할	빈도(명)	%
1. 어려울때 내편이 되어 주신다	46	30.7
2. 혼계와 충고를 해 주신다	43	28.7
3. 집안일을 도와 주신다	40	26.7
4. 용돈을 주신다	8	5.2
5. 의논상대가 되어 주신다	7	4.7
6. 가풍과 역사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	6	4.0
합 계	150	100.0

<표 2> 조모와 비동거 하는 청소년이 지각한 조모 역할

(N = 161)

조모 역할	빈도(명)	%
1. 혼계와 충고를 해 주신다	58	36.0
2. 어려울때 내편이 되어 주신다	45	28.0
3. 집안일을 도와 주신다	24	14.9
4. 용돈을 주신다	20	12.5
5. 의논상대가 되어주신다	7	4.3
6. 가풍과 역사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	7	4.3
합 계	161	100.0

B.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부모와의 응집도, 조모와의 친밀도

본 연구대상자들의 자아정체감 수준을 문항별로 보면 <표 3>과 같다. 각 문항은 1-5점 사이의 범위를 갖는다.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 수준이 5점 척도에서 2.85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 척도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나는 사람들을 대할때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쉽게 알아 차린다(M=3.40)', '나는 대부분의 여자(남자) 친구들과 쉽사리 개인적으로 친밀해진다(M=3.38)', '나의 문제는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정말 모른다는 것이다(M=3.36)', '나는 내가 다음에 무엇을 하게 될 지 전혀 모르겠다(M=3.35)', '나는 내가 해놓은 일들에 진정한 자부심을 느낀다(M=3.34)'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 척도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나는 친척들이 내가 어머니나 아버지를 꼭 닮았다고 말하는 것이 싫다(M=1.79)', '나는 지금의 내

〈표 3〉 연구대상자들의 자아정체감 점수

(N = 313)

문항	평균	표준편차
1. 장래의 나는 현재의 나와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2.33	1.16
2. 나는 남들이 아무개의 "동생" 혹은 아무개의 '딸' 이라고 부르는 것이 싫다.	2.43	1.23
3. 나는 다른 사람에게 'NO' 라고 대답하기가 어렵다.	2.60	1.16
4. 나의 친구들은 내가 언제나 나 자신의 소원하는 바를 의식하고 있는것 같다고 말한다.	2.74	0.98
5. 나는 무엇을 하고 싶지 않을때, 주저없이 그 이유를 말한다.	2.94	1.06
6. 때때로 나는 전혀 나답지 않은 일들을 한다.	2.53	1.04
7.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나는 달라진 것 같다.	2.47	1.09
8. 남들은 별 어려움 없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	3.17	1.09
9. 내 친구와 가족들은 내가 여러가지 일들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잘 모른다.	3.11	0.99
10. 나는 내가 해놓은 일들에 진정한 자부심을 느낀다.	3.34	0.96
11. 나는 내가 다음에 무엇을 하게 될 지 전혀 모르겠다.	3.35	1.08
12. 나는 대개 선생들이 나에게서 기대하는바를 잘알고 있다.	3.07	1.06
13.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되고 싶다.	2.18	1.19
14. 나는 내 스스로 어떤 일을 결정하려는데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2.67	1.10
15. 때때로 나는 나 자신에게까지도 생소한 존재로 여겨진다.	2.89	1.11
16.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있는 그대로를 알아준다.	3.18	1.01
17. 내 친한 친구들은 나와 매우 다르다.	2.75	1.11
18. 나는 나 자신을 정말 잘 안다.	3.18	1.13
19. 친구들 사이에서 나는 자신에게 내 자신을 터놓고 얘기를 할 수 없다.	3.31	1.23
20. 사람들은 나를 어렵지 않게 잘 이해하게 된다.	3.31	1.03
21. 나의 문제는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정말 모른다는 것이다.	3.36	1.37
22. 나는 친척들이 내가 어머니나 아버지를 꼭 닮았다고 말하는 것이 싫다.	1.79	1.03
23. 나는 대부분의 여자(남자) 친구들과 쉽사리 개인적으로 친밀해진다.	3.38	1.22
24. 장래의 어떤 중대한 일을 일른 선택해야 한다는 말을 들을때 나는 초조하고 무서워진다.	2.64	1.17
25. 나는 나를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처럼 그려보고 싶다.	2.35	1.12
26. 내 인생관은 언제나 동일하다.	3.04	1.13
27. 나는 가끔 어느때는 이걸 원했다가 나중에 가서는 또 다른 것을 원하곤 한다.	2.46	1.05
28. 나는 사람들을 대할때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쉽게 알아 차린다.	3.40	1.01
29. 나는 선생님들 앞에서는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다.	2.74	1.08
30. 남들이 나에게서 깊은 인상을 받는 것은 나의 강한 소신때문이다.	2.77	0.88
31. 나는 중학교때 만큼 많이 변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2.84	1.10
32. 이따금 내가 나 자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머리를 스친다.	2.87	1.16
합 계 (전체의 합산 평균 및 표준편차)	91.09	10.45
총 문항의 평균	2.85	

가 아닌 다른 존재가 되고 싶다(M=2.18)', '장래의 나는 현재의 나와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M=2.33)', '나는 나를 내가 아닌 어떤 사람처럼 그려보고 싶다(M=2.35)', '나는 가끔 어느때에는 이걸 원했다가 나중에 가서는 또 다른 것을 원하곤 한다(M=2.46)'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서봉연(1974)의 척도를 요인분석한 결과 4요인이 추출되었다. 이 4요인의 고유치(eigen value)는 1.0 이상으로, 제1요인에 목표지향성이, 제2요인에 독특성이, 제3요인에 대인관계가, 제4요인에는 자기존재의식이 모여있다. 고유치가 1.0 이상으로 83%의 설명력을 가지는 4요인을 선택한 다음 모든 관측치들을 4개의 요인으로 점수화하였다. 따라서 자아정체감의 변수는 Identity = $F1 \times 0.3725 + F2 \times 0.2907 + F3 \times 0.1568 + F4 \times 0.1106$ 으로 하였다.

(F1, F2, F3, F4 : 요인점수 / 0.3725, 0.2907, 0.1568, 0.1106 : Proportion)

요인분석을 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부모와의 관계를 보는 청소년과 부모와의 응집도 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 문항은 1 - 5점 사이의 범위를 갖는다.

청소년들과 아버지의 응집도는 전체 평균 3.29, 어머니와의 응집도가 전체 평균 3.93 으로 높게 나타나 아버지와의 응집도보다 어머니와의 응집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의 응집도를 묻는 문항중에서 '아버지는 나를 잘 이해하신다'(M=4.13, SD=0.97), '내가 피로, 실망, 분노, 느낄때 아버지도 같이 느껴주신다'(M=4.10, SD=0.86)의 문항에서 높게 지각하였으며,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문항은 '내 개인에 관한 일을 결정할때 아버지와 상의한다'(M=2.64, SD=1.13), '한가한 때에 아버지와 같이 하고 싶은 일이나 이야기거리를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다'(M=2.65, SD=1.21)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지각한 아버지와의 관계는 심리적 응집도는 높으나, 독립성을 추구하는 청소년시기의 발달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어머니와의 응집도를 묻는 문항중에서는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머니가 같이 해결해 주신다'(M=4.70, SD=0.73), '어머니는 나를 잘 이해하신다'(M=4.47, SD=0.85)의 순으로 높게 지각되었으며,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인 문항으로는 '집에 있을때 어머니와 같이 있기 보다는 나혼자 있고 싶다'(M=3.38, SD=0.69), '나와 어머니를 생각할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많다'(M=3.40, SD=0.99)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어머니와의 관계는 심리적 응집도도 높고, 실제적인 생활이나 행동면에서도 아버지와 달리 어머니와는 긴밀한 상호작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과 조모와의 관계를 친밀도 수준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들과 조모와의 친밀도 수준은 전체 평균 3.62 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조모와의 친밀도 정도를 묻는 문항 중에서 '나는 손자녀로써 당연히 할머니께 효도를 해야 한다'(M=4.35, SD=0.70)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할머니는 나를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M=4.23, SD=0.90), '일반적으로 가족행사에 할머니의 참석은 중요하다'(M=4.06, SD=0.97)의 순으로 높게 지각하였다. 비교적 낮은 수준의 반응을 보인 문항은 '할머니는 내가 문제가 있을때 의논상대가 되어 주신다'(M=2.36, SD=1.17), '할머니는 내게 조상어른이나 가족역사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M=2.73, SD=1.20)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강한 도덕적, 이상주의적인 경향이 조모와의 친밀도에 반영되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으며, 조모와 손자녀간에 비교적 정서적으로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의논상대가 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조모와의 관계를 친밀하게 지각하고 있는것으로 볼 수 있다.

C.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부모와의 응집도, 조모와의 친밀도

<표 5>에서 제시된 바와같이 성별에 따라 모와의 응집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학생들이 모와의 응집도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반면, 성별에 따라 자아정

〈표 4〉 자아정체감 문항에 대한 요인행렬표

내 용	요인 1 목표 지향성	요인 2 독특성	요인 3 대인 관계	요인 4 자기존 재의식
1. 장래의 어떤 중대한 일을 일론 선택해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 나는 초조하고 무서워진다.	.29	.04	.22	.24
2. 나는 나를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처럼 그려보고 싶다.	.46	.03	.35	-.01
3. 나는 가끔 어느때는 이걸 원했다가 나중에 가서는 또다른 것을 원하곤 한다.	.41	-.05	.23	.11
4. 남들이 나에게서 깊은 인상을 받는것은 나의 강한 소신 때문이다.	.28	.11	.13	.26
5. 나는 내가 해놓은 일들에 진정한 자부심을 느낀다.	.23	.05	.03	.35
6. 나는 내가 다음에 무엇을 하게될지 전혀 모르겠다.	.47	.16	.01	.10
7. 나는 대개 선생들이 나에게서 기대하는 바를 잘 알고 있다.	.31	.06	.01	.00
8.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되고 싶다.	.48	.07	.28	-.17
9. 나는 나 자신을 정말 잘 안다.	.25	.18	.19	.17
10. 나의 문제는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정말 모른다는 것이다.	.57	.13	.03	.09
11. 나는 사람들을 대할때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쉽게 알아 차린다.	.19	.45	.01	.15
12. 나는 친척들이 내가 어머니나 아버지를 꼭 닮았다고 말하는 것이 싫다.	-.30	.33	.01	-.26
13. 나는 대부분의 여자(남자)친구들과 쉽사리 개인적으로 친밀해진다.	.08	.35	-.13	.36
14. 장래의 나는 현재의 나와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02	-.13	-.04	.05
15. 나는 남들이 아무개의 '동생' 혹은 아무개의 '딸'이라고 부르는 것이 싫다.	.16	.22	-.34	.13
16. 나는 내 스스로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는 않는다.	.17	.40	-.02	.05
17. 나의 친구들은 내가 언제나 나 자신이 소원하는 바를 의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05	.17	-.16	-.21
18. 나는 무엇을 하고 싶지 않을때 주저없이 그 이유를 말한다.	.23	.43	.05	-.10
19. 나는 선생님앞에서는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보일수가 없다.	.24	.09	.26	.13
20. 내 친구와 가족들은 내가 여러가지 일들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잘 모른다.	.21	.05	.23	.35
21.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있는 그대로를 알아준다.	.04	-.02	.54	.01
22. 내 친한 친구 들은 나와 매우 다르다.	-.14	-.09	-.30	-.00
23. 친구들사이에서 나는 자신있게 내 자신을 터놓고 얘기를 할 수 없다.	.16	.02	.39	.10
24. 사람들은 나를 어렵지 않게 잘 이해하게 된다.	-.10	.13	.60	.12
25. 남들은 별 어려움없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	.09	.14	.47	.01
26. 때때로 나는 나 자신에게까지도 생소한 존재로 여겨진다.	.22	.06	-.01	.54
27. 때때로 나는 전혀 나답지 않은 일들을 한다.	.15	.10	.13	.42
28.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나는 달라진 것 같다.	-.08	-.01	.00	.52
29. 나는 중학교때 만큼 많이 변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18	.10	-.03	.43
30. 이따금 내가 나 자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머리를 스친다.	.23	.13	-.05	.44
고유치 (eigen value)	3.22	1.65	1.35	1.01
설명력 (Proportion)	0.37	0.29	0.16	0.11

(total : 83%)

(표 5) 사회인구학적변인과 자아정체감, 부모와의 응집도, 조모와의 친밀도

(N = 313)

종속변인	자아정체감	부와의 응집도	모와의 응집도	조모와의 친밀도
	t 값			
성 별	0.31	1.53	5.63***	1.00
동거여부	0.47	1.41	0.07	2.47*
	F 값			
연 령	0.70	0.76	1.44	0.08
모의 교육수준	2.11	1.51	0.31	1.43
부의직업	0.62	1.28	1.37	0.46
모의직업	1.09	0.28	0.61	1.41
조모의 교육수준	0.42	2.26	1.74	0.45
조모의 연령	1.35	0.74	0.15	1.23
지리적거리	0.63	1.53	0.29	0.72
부의 교육수준	1.17	0.54	0.58	3.63**
접촉빈도	1.02	0.77	1.50	4.33*
조모의 건강	1.18	4.44*	0.90	0.33

* P < .05 ** P < .01 *** P < .001

체감, 부와의 응집도, 조모와의 친밀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집단별 평균값은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자아정체감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서봉연(1975)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관한 심리학적 일연구'의 내용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데, 중학교 시기에서는 여학생의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고, 고등학교 시기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다가, 대학교 시기에서는 남학생의 자아정체감 수준이 더 높아진다고 하였다.

조모와의 동거 여부에 따라 자아정체감, 부와의 응집도, 모와의 응집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조모와의 친밀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조모와 동거하는 집단이 조모와의 친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것은 국민학교 5, 6 학년을 대상으로 한 서동인(1990)의 '손자녀가 지각한 조모와의 심리적 친밀도 : 친조모와 외조모의 비교 연구'의 결과에서 조모와의 동거여부가 손자녀에 대한 조모 역할 수행의 내용과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반면, 박의순(1991)의 '대학생이 지각한 조부모와의 관계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데, 이는 대학생일 경우 저

학년 학생과는 달리 신체적인 접촉이나 동기가 조부모와의 심리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6) 유의한 사회인구학적변인과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독립변인	집 단	조모와의 친밀도 Grouping
부의 교육수준	국졸	B
	중졸	B
	고졸	B
	대졸	B
	대학원졸	A
접촉빈도	매일	A B
	일주일에 한두번	A
	한달에 한두번	A
	1년에 한두번	A B
	1-2년에 한두번	A B
	거의 빈적이 없다	B
		부와의 응집도
조모의 건강	나쁘다	B
	보통이다	B
	건강하다	A

〈표 5〉〈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의 교육수준과 조모와의 친밀도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1$). 부의 학력이 대학원졸 이상인 청소년 집단이 대학 졸 이하의 청소년 집단에 비해 조모와의 친밀도를 높게 지각하였다. 그러나 대학졸 이하의 집단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조모와 손자녀간의 접촉빈도와 조모와의 친밀도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01$). 조모를 거의 빈적이 없는 청소년 집단에 비해, 1-2년에 적어도 한두번 이상씩 조모와 접촉한 집단이 조모와의 친밀도를 높게 지각하였다. 그리고 매일이거나 1년에 한두번 정도 이하로 드물게 조모와 접촉한 집단보다는, 1주일에 한두번 그리고 한달에 한두번 정도 조모와 접촉할때 조모와의 친밀도 수준을 가장 높게 지각하였다. 따라서 Tinsley & Parke(1983)의 접촉빈도가 반드시 친밀도와 정비례적인 변수가 아니며, 오히려 적당한 빈도가 친밀도에는 더욱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친밀도란 관계의 양적인 개념이 아닌, 질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조모의 건강과 부와의 응집도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즉 조모가 건강한 집단과 조모의 건강이 보통이거나 나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5$). 따라서 조모의 건강이 좋을수록 부와의 응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D. 부모와의 응집도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부모와의 응집도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부모와의 응집도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P < .001$), 모와의 응집도간에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E. 조모의 역할과 조모와의 친밀도 및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조모의 역할에 따라 조모와 손자녀간의 친밀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10.34^{***}$, $P < .001$). 즉, 조모의 역할이 집안일을 도와주신다거나, 용돈을 주시는 등의 실제적인 도움보다는, 훈계와 충고를 해 주신다거나 어려울때 내편이 되어 주시는 등 심리 정서적인 도움을 주는것이 청소년기의 손자녀에게 더욱 중요하게 받아들여져서 할머니와의 친밀감을 높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조모와의 친밀도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의 관계는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P < .01$), 조모와 손자녀간의 친밀한 정도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조모와의 친밀도와 조모-부모 관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따라서 조모-부모 관계가 조모와 손자녀간의 친밀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F.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변인과 부모 및 조모와의 관계의 상대적 영향력

조모와의 동거와 비동거에 따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점수를 이용한 적률상관분석 및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모와 동거 및 비동거하는 청소년기 손자녀 집단에서의 사회인구학적변인들과 가족관계 변인들간의 적률상관관계는 〈표 7〉〈표 8〉과 같다.

〈표 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조모와 동거하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가장 영향을 주는 변인은 부모와의 응집도, 조모 - 부모 관계, 모와의 응집도, 모의 직업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17%이다. 따라서 조모와 동거하는 확대가족에서는 부모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조모와 부모간의 관계에 따른 청소년의 심리적 지각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친다.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모와의 응집성으로, 아버지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으며, 확대가족에서의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는 가족구성원과 그들간의 관계 모두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사회인구학적변인과 조모와의 동거집단에서의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N=15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자아정체감	-											
2. 부와의 응집도	.195*	-										
3. 모와의 응집도	.231**	.449***	-									
4. 조모와의 친밀도	.202*	.391***	.160*	-								
5. 조모-부모관계	.169*	.353***	.185*	.657***	-							
6. 연령	.046	.078	.060	.077	.086	-						
7. 부의 직업	.115	.108	.041	.047	.027	.061	-					
8. 모의 직업	.099	.097	.011	.123	.153	.050	-.086	-				
9. 부의 교육수준	.071	.084	.064	.059	.040	.036	.399***	.025	-			
10. 모의 교육수준	.099	.175*	.044	.097	.078	.053	.256**	.096	.605***	-		
11. 조모 연령	.043	.083	.091	.118	.144	.042	.062	.014	.158	.082	-	
12. 조모 교육수준	.018	.043	.115	.115	.021	.067	.300***	.121	.380***	.319***	.017	-
평균	91.397	33.437	39.325	55.881	8.066	16.046	4.067	1.740	4.450	3.946	4.775	1.807
표준편차	10.765	6.635	5.572	11.855	1.427	0.827	0.994	1.271	0.866	0.820	1.228	0.766

* P < .05 ** P < .01 *** P < .001

〈표 8〉 사회인구학적변인과 조모와의 비동거집단에서의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N = 16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자아정체감	-													
2. 부와의 응집도	.192*	-												
3. 모와의 응집도	.320**	.366***	-											
4. 조모와의 친밀도	.114	.263***	.253**	-										
5. 조모-부모관계	.093	.249**	.264***	-.651***	-									
6. 연령	.054	.077	.150	.080	.024	-								
7. 부의 직업	.052	.084	.088	.092	.044	.157*	-							
8. 모의 직업	.066	.092	.062	.021	.060	.129	.187*	-						
9. 부의 교육수준	.071	.021	-.008	.231**	.129	.073	.422***	.033	-					
10. 모의 교육수준	.070	.044	.058	.136	.103	.097	.379***	.088	.698***	-				
11. 조모 연령	.053	.051	.021	.068	.015	.173*	.066	.108	.023	.069	-			
12. 조모 교육수준	.200*	.063	.122	.174*	.151	.068	.197*	.027	.323***	.301***	.061	-		
13. 지리적 거리	.013	.044	.069	.002	.012	.127	.000	.025	.077	.113	.078	.104	-	
14. 접촉 빈도	.004	.108	.059	.303***	.238**	.062	.015	.071	.126	.167*	.149	.109	.587***	-
평균	90.839	32.379	39.373	52.776	8.329	16.292	3.882	1.663	4.311	3.789	4.143	2.025	3.205	3.335
표준편차	10.188	6.595	5.871	10.204	1.495	0.940	1.169	1.293	0.860	0.817	1.239	0.961	0.961	0.935

* P < .05 ** P < .01 *** P < .001

〈표 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조모와 비동거하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모와의 응집도, 조모와의 친밀도 순으로 나타났

다. 이들의 설명력은 22%이다. 따라서 조모와 비동거하는 핵가족에서의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 다

〈표 9〉 조모와 동거 및 비동거하는 집단에서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대한 사회인구학적변인과 부모 및 조모와의 관계간의 단계적 회귀분석

단 계	동 거 (N=152)			비 동 거 (N=161)		
	자 아 정 체 감			자 아 정 체 감		
	독립변인	β	partial R ²	독립변인	β	Partial R ²
1	부와의 응집도	.062*	.09	모와의 응집도	.03***	.20
2	조모-부모 관계	.059*	.04	조모와의 친밀도	.01	.02
3	모와의 응집도	.015*	.02			
4	모의 직업	.010*	.02			
	R ²		.17	R ²		.22
	* P<.05	F=7.09***		*** P<.001	F=21.35***	

음 변인으로 조모와의 친밀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앞에서 제시한 〈표 5〉에서와 같이 조모와 같이 살지는 않지만 조모와의 접촉빈도에 따라 조모와 손자녀간의 친밀도가 달라지며, 이것은 결국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조모와의 동거와 비동거를 구별하지 않고 총체적으로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인을 찾기 위하여 자아정체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총체적인 변인들간의 단계적 회귀분석
(N = 313)

단 계	독 립 변 인	자 아 정 체 감	
		β	partial R ²
1	모와의 응집도	.023***	.13
2	조모와의 친밀도	.006**	.04
3	부와의 응집도	.008	.01
4	모의 직업	.036	.01
	R ²		.19

** P<.01 *** P<.001 F=16.94 ***

〈표 1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모와의 응집도, 조모와의 친밀도, 부와의 응집도, 모의 직업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설명력은 19%이다. 따라서 전

체적으로 볼때,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머니와의 관계이며, 그 다음이 할머니와의 친밀도, 아버지와의 관계로 나타나 가족 구성원들 모두와의 관계가 자아정체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가족관계로 인한 가정의 심리적 환경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결과와 유사한 선행 연구로써, 김형태(1989)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 수준과 가정의 심리적 환경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김희영(1986)도 가정의 응결력이 자아정체감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가진다고 하였다.

V. 논의 및 결론

본 논문에서는 청소년기 손자녀가 지각한 부모와의 응집도, 조모와의 친밀도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과 가정의 심리적 환경변인으로써의 부모 자녀간 응집도 및 조모와 손자녀간의 친밀도를 재조명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서울에 소재한 고등학교 1, 2학년에 재학중인 남녀 학생 3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 수준은 보통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과 부모와의 응집도 수준에 있어서는, 비교적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들과 아버지와의 응집도보다 청소년들과 어머니와의 응집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들과 조모와의 친밀도 수준도 비교적 높았다.

2. 성별에 따라 모와의 응집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학생들에게 있어서 모와의 응집도 수준이 더 높았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부와의 응집도, 조모와의 친밀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조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라 조모와의 친밀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조모와 동거하는 청소년들이 조모와의 친밀도를 더 높게 지각하였다. 그리고 부의 교육수준, 접촉빈도에 따라 조모와의 친밀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조모의 건강과 부와의 응집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3.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부모와의 응집도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와의 응집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았다.

4. 조모의 역할은 조모와의 친밀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모가 심리적, 정서적인 역할을 할때 손자녀들이 보다 조모를 친밀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모와의 친밀도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의 관계에 있어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모와의 친밀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5. 조모와의 친밀도와 조모-부모 관계에 있어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조모와 부모간의 관계의 질이 조모 손자녀간의 친밀한 정도에 영향을 미쳤다.

6. 조모와 동거하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가장 영향을 주는 변인은 부와의 응집도, 조모-부모 관계, 모와의 응집도, 모의 직업 순으로 나타났다.

조모와 비동거하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모와의 응집도, 조모와의 친밀도 순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조모와의 동거 및 비동거 집

단간에 차이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때, 다음과 같은 논의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 수준은 전체적으로 볼때 보통으로 나타나,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이 형성되고 있는 과정을 나타내준다고 볼 수 있거나 좀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형성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둘째,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와의 응집도 수준이 높게 나타나 부모자녀 관계가 긴밀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모와의 응집도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은, 청소년기가 부모와 심리적 정서적으로 독립을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서구와 달리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부모와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모와의 응집도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부모와의 응집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음으로써, 밀접한 부모 자녀 관계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높은 응집도로 형성되어진 안정된 부모 자녀 관계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부모 자녀 관계에서 아버지와의 응집도보다 어머니와의 응집도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부모 자녀 관계에서 아버지와는 권위적인 관계를, 어머니와는 정서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가족체제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어머니와의 관계가 보다 긴밀하게 형성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여학생일 경우, 어머니와의 응집도가 높아 가족관계에 있어서 어머니와 딸간의 애착관계의 일반적인 경향을 잘 말해주고 있으며, 청소년 시기에 여학생에게는 가족관계 중 어머니와의 관계가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셋째, 청소년기 손자녀들과 조모와의 친밀도 수준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조모의 손자녀에 대한 애정과 청소년기 손자녀의 조모에 대한 도덕적인 효의 사상으로 조모와 손자녀간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려운일이 생겼을때는 조모를 의논상대로는 생각하지 않

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심리적으로는 친밀감을 가지나 실제로는 독립적인 행동을 추구하는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조모와의 친밀도와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모와의 친밀도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은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상호의존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은 부모 자녀 관계만이 아니라, 조모와의 관계도 봐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조모와 동거하는 경우와 비동거하는 경우에 있어서, 즉 확대가족과 핵가족에 있어서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다르게 나타난것은, 가족형태에 따른 가족구성원간의 심리적 역동성을 잘 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확대가족에서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와의 응집도, 조모-부모 관계, 모와의 응집도 순으로 나타나, 확대가족에 있어서의 아버지와 관계 및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이 나타나고 있다. 아마도 아버지가 전체 집안 분위기를 이끄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이것이 또한 조모 - 부모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서 결국, 이러한 가정 분위기와 부, 모, 조모, 손자녀간의 다차원인 상호관계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핵가족에 있어서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모와의 응집도와 조모와의 친밀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핵가족에 있어서는 어머니가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생활주기상의 한 과정으로 볼 때 사회생활에 바쁜시기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할애하는 시간이 적음으로써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간접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핵가족에서는 어머니와의 관계 및 어머니의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와같이, 핵가족에서의 아버지 역할은 성역할에서 경제적인 원조의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그외에는 주로 어머니에게 전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확대가족에서는 그와 달리 아버지가 경제적인 물질 제공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형성 및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핵가족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이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되며, 자녀의 이성발달 및 가족관계형성에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핵가족에 있어서 자아정체감에 조모와의 친밀도가 영향을 미친것은 같이 살지는 않지만 조모와의 긴밀한 상호작용과 관계의 질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조모와 동거하는 경우, 비동거에 비해 조모와의 관계를 보다 친밀하게 지각하였으나, 그것이 자아정체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조모와 동거하지는 않지만 조모와의 관계가 친밀할때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접촉의 상호작용과 교환의 높은 정도를 유지할때 손자녀의 이성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가족구조가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가는 추세에 있으나, 그것은 가족들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고 심리, 정서적으로는 밀접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수정확대가족(modified extended family)으로서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동거, 비동거의 구조적인 가족형태보다는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응집도, 친밀도등 심리적인 가정환경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부모 자녀 관계, 조모-부모관계, 조모와 손자녀관계가 좋으면, 결국 청소년의 이성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족상호간의 심리적인 역동성을 중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는 부모와의 응집도, 조모와의 친밀도에 의한 전체적인 가족관계 및 가족분위기가 중요하게 작용하며, 따라서 가정의 심리적 환경변인으로서 부모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조모와의 역동적인 관계를 살펴 우리나라 가족관계에 있어서 독특한 상호의존의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그것을 토대로 하는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서울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남, 여 학생만을 한정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기타지역이나 청소년기 자녀 전체에 까지 일반화시키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2. 부모 자녀 관계 및 조모 손자녀 관계가 상호적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자녀 및 손자녀 입장에서 지각한 측면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상호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을 쌍방향으로 하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가정의 심리적 환경만을 다루었으나, 학교환경, 또래친구와의 관계등도 포함시켜, 다른 변인의 영향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4. 연구대상자를 청소년기로 한정시킴으로써 발달에 따른 변화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구는 발달단계에 따른 가족 관계 연구가 요구된다.

5. 본 연구에서는 조모만의 관계를 다루었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조부와와의 관계도 보는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1) 김순옥(1988), "부모 자녀간의 응집성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 사회과학 제 28권, 1호,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2) 김애련(1990), "노인의 가족내 지위와 역할",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3) 김재은(1974), 「한국가족의 심리」, 서울: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4) 김진희(1989),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5) 김희영(1986), "청소년기 자아정체감 발달과 가정의 심리적 환경 변인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6) 박의순(1990), "대학생이 지각한 조부모와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7) 서동인(1989), "손자녀가 지각한 조모와 손자녀와의 접촉과 조모의 역할수행",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7권, 제2호. PP.45-60.
- 8) ———(1991), "손자녀가 지각한 조모와의 심리적 친밀도 : 친조모와 외조모의 비교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9) 서동인, 원효중, 노영주(1988), 「가족관계와 의사소통 - 응집성과 변화」, 서울:까치사.
- 10) 윤진(1989), 「성인 노인 심리학」, 서울:중앙적성출판사.
- 11) 윤진, 조석미(1980), "가족구성원에 대한 노인의 심리적 거리", 한국노년학회지, 제1집, 75-85.
- 12) 홍두승(1983), "직업분석을 통한 계층연구 -한국 표준직업분류를 중심으로-",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5권 3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69-86 (미간행).
- 13) 홍성애(1989), 가정환경과 가족체계상호작용유형이 청년기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14) Atchley, R. C.(1980), The social forces in later life (3rd Ed.), Belmont, CA : Wardsworth.
- 15) Baranowski, M.(1982), "Grandparent - adolescent relation: Beyond the nuclear family", Adolescence, 17, PP. 575-584.
- 16) Barranti, C.(1985), "The grandparent / Grandchild relationship: Family resource in an Era of Voluntary Bonds", Family Relations, 34.343-352.
- 17) Bengston, V., and J.A. Kuypers(1971) Generational differences and the developmental stake.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972, 2, 249-259.
- 18) Bengston, V.L., & S. Schrader(1982). Parent - Child Relations, In Mangen, D, J. & Peterson, W. A.(Eds.), Research Instruments in Social Gerontology, Vol. 2. Minneapolis, Min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15-185.
- 19) Davis, R. H.(1977), "Grandparenting: Varying themes in films", The Gerontologist, 17, 45-47.
- 20) Erikson. E. H.(1950),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INC.
- 21) ———(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W. W. Norton & Co.

- 22)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 W. Norton & Co.
- 23) Hagestad, G.(1985), *Continuity and connectedness*, In V. Bengtson & J. Robertson (Eds.), *Grandparenthood: Traditional and emergent perspectives*, 31-48, Beverly Hill; Sage.
- 24) Hill, R., N. Foote, J. Aldous, R. Carlson, & R. MacDonald(1970), *Family development in three generations*, Cambridge, Mass; Schenman.
- 25) Hjelle, L. A., & D.J. Ziegler(1976), *Personality theories*, NY: McGraw-Hill Book Company.
- 26) Hoffman, E.(1980). *Young adults' relations with their grandparents: An exploratory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0, 299-310.
- 27) Kilpatrick, W.(1974), *Identity: Continuity, fidelity and future shock*, *Adolescence*, 9, 285-288.
- 28) Kivett, V.S.(1985), *Grandfathers and Grandchildren: Patterns of Association, Helping and Psychological Closeness*, *Family Relations*, 34, 565-571.
- 29) Knopka, G.(1976), *Young girls: A potrait of adolescence*,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 - Hall 1976.
- 30) Kornhaber, A & K.L. Woodward(1981), *Grandparents / Grandchildren: The vital connection*. Garden City, NY; Anchor press / doubleday.
- 31) Kornhaber, A.(1985), *Grandparenthood and the "New Social Contract"*, In Bengtson, V. & Robertson, J.(Eds.), *Grandparenthood*,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 32) Lerner, R. M., & Hultsch, D. F.(1983), *Human development: A life span perspective*. NY: McGraw Hill Book Company.
- 33) Mead, M.(1970), *Culture and commitment: A Study of the generation gap*, New York: Basic Books.
- 34) Neugarten, B., & Weinstein, K.(1964), *The changing American grand-par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6, 199-204.
- 35) Robertson, J.(1975), *Interaction in three generation familie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6, 103-110.
- 36) —————(1976), *Significant of grandparent: Perseptions of young adult grandchildren*. *The Gerontologist*, 16, 137-140.
- 37) —————(1977), *Grandmotherhood: A study of role concep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 165-174.
- 38) Shanas, E.(1980), *Older people and their families: The new pione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9-15.
- 39) Sprey, J., & S. Matthews(1982). *Contemporary grandparenthood: A Systemic transition*. *Annals, AAPSS*, 464, 91-103.
- 40) Streltzer, A.A(1979), *Grandchildren's group in a home for the aged*, *Health Social Work*, 4, 167-183.
- 41) Thompson, L., & A. Walker(1987). *Mothers and daughters: Aid patterns and attachm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313-322.
- 42) Tinsley, B., & Parke, R.(1983). *Grandparents as support and socialization agents*. In M. Lewis (Ed.), *Beyond the dyad*, New York: Plenum.
- 43) Troll, L.E.(1980), *Grandparenting*, In L. W. Poon (ED.), *Aging in the 1980s: Psychological issues*,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ological issue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44) Updegraff, S.G.(1968), *Changing role of the grandmother*, *Journal of Home Economics*, 60, 177-180.
- 45) Waterman, A.S.(1982), *Identity development from adolescence to adult-hood: An extension of theory and a review of research*, *Developmental Psychology*, 18(3), 341-358.